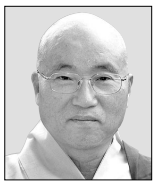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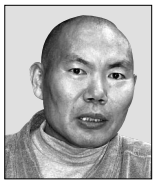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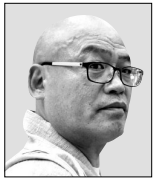
순천 송광사 고승 재조명
보조사상연구위원장 법상 스님은 9월 20일 서울 법륜사에서 '송광사의 고승 나용과 제자 무학, 고봉 재조명'을 주제로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축구단 창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14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 창단 고별식을 개최했다.



오지마을 자장면 봉사
양양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은 9월 16일 양양 현북면을 시작으로 하반기 오지마을 자장면 공장 봉사를 시작한다.



땡큐뫼다콘서트
찬불가수 자명 스님이 음성공양 3집 음반 발매 기념 '땡큐뫼다콘서트'를 9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볼'에서 연다.



추석 맞이 어르신 초청 만발공양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29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나눔찬치를 열었다.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은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낮 12시 강남구 역삼동 대려도에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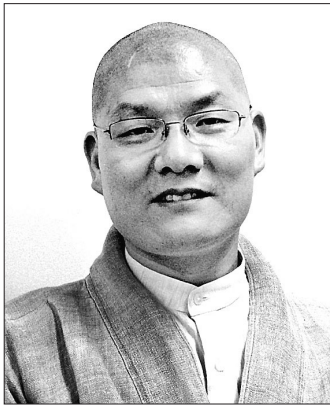
진흥원 장경호 거사 39주기 추모법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3일 BBS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장경호 거사 39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인사> 문화재청 승진·전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부이사관 이경훈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김성일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서기관 김종수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안형순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유성과 기술서기관 박용기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원성규
△대변인 서기관 안형순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서기관 윤순호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부이사관 이경훈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연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학예연구관 김성배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학예연구관 이재필

“인간에 대한 서비스가 불교 복지”

신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재단설립 20년 라이브러리 구축
불교복지 비전 구체화할 것
시설장 교육·회의 활성화도
질적·양적 성장 함께 이룰 것

지난 8월 27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임명된 보경 스님(서울 법륜사 주지)은 스님은 요즘 오후 대부분을 재단 사무실에서 보낸다. 일이 없어도 책을 읽으면서 저녁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허다하다. “자리를 지키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이 자신만의 업무를 익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역사와 그 속에 내재한 공공성에 대해 한 시간 가량 강의를 하기도 했다. 불교복지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재단 수장을 맡게 된 스님에게서 부담감과 열의가 동시에 읽혔다. “불교의 복지 서비스는 휴머니티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종교적 표현이죠.”

동안 불교 복지에 이렇다 할 기초와 지향점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던 만큼, 이를 통해 불교 복지의 비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겠다는 발상이다. 스님은 “불교 복지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도 “양적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불교의 사회

적 위상도 제고하고 종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면서 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불교 복지 시설장들과의 회의·교육도 강화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생각이다. 재단은 이들의 생각을 모으고 연결해주는 허브가 되어 서로 간 대의식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단이 꾸준히 추진중인 교구본사법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며 중앙과 교구의 복지가 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보경 스님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3년 임기의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센터는 미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는 스님은 이번 방문을 통해 주변에 신경써야 할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보경 스님은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에 요의 중생의 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983년 송광사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경 스님은 송광사 총무국장, 교육원 연수국장,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송광사 서울분원 법륜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정각원·서울 중부서, 경승 위촉식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과 서울 중부서(서장 윤소식)가 경승 위촉식을 봉행했다. 동국대는 9월 3일 중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들의 불교신행을 지원하고 법회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경승 위촉식을 봉행했다. 위촉식에서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요경스님, 법찬스님, 정천스님, 명진스님 등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정각원장 법타스님은 “중부경찰서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동국대 스님들로 경승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여고생들 장수사진 재능나눔 화제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지난 9월 5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23명에게 장수사진을 선물했다. 장수사진은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영상제작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5월 촬영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직접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만수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어르신들 역시 학생들의 솜씨가 전문 사진가 못지 않다고 흡족해하며 고맙다고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9월 8일 조계사 한가위 다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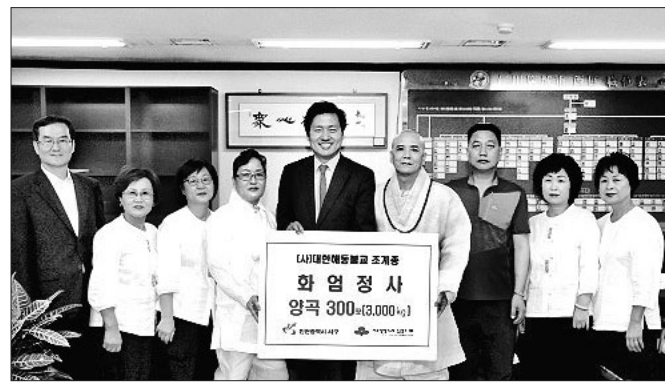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주지 원평)는 9월 8일 경내 대웅전에서 한가위 다례제를 개최했다. 이날 다례제에는 5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해 영가 위패가 놓인 제상을 향해 제주(祭主)와 불자들은 정성스럽게 차를 올렸다.

법상 스님은 기도에서 “맑은 차 공양 받으시고 덧없는 애욕의 갈증을 푸소서. 이기심에 찌든 편협한 마음을 너그러우게 하시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고 큰 서원을 이루시라”고 기원했다. 이날 다례제에 참가한 대중들은 위패를 소각하며 회향한 뒤 송편을 보시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온 김미유 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며 “온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바라면서 절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는 한가위를 앞둔 8월 31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행사를 열기도 했다. 조계사 전법국장 지현 스님은 “이주노동자들과 우리는 국적과 말이 달라도 하나”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랑나눔 실천 ‘사랑의 쌀’ 전달



대한불교 무량종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9월 12일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 쌀 10kg 300포를 강법석 인천 서구청장에게 기탁했다.

보광 스님은 지난 2005년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대한불교 인천 화엄정사를 창건해 불심을 키웠다.

평소 저소득 양곡지원, 밑반찬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서구청과 ‘사랑나눔 실천 활동’ 협약 체결이후 석남동을 비롯한 서구 전역의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각종 주민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생들을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며, “사랑나눔 실천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위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욱위원장이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났다.

주모비에 헌화 후 일본군 역사편을 둘러본 한 위원장은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윤주경, 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국태안민 남북통일 / 창조경제 민족화합 / 나라위한 대법회
불기 2558년 울맥대본산 아일다울원

제1회 범종단 용화사 금강계단 구족계 / 국제보살계 戒

석가여래咐囑 : 불자여! 율법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방불자 승가여! 재가여! 좋은인연 맺어가는 보살의길 향해
종단을 초월하여 한국불교 계율의 율법을 지키고져 서원세워
갑오년 부처님 지혜력·자비력·가피력 나라위한 서원 대법회에
깊은 뜻과 마음으로 청정계단에 동참하여 무루복락 지으소서.

- 삼 화 상 / 전계화상 수진대울사 갈마사 해남대울사 교수사 무관대울사
●칠 중 사 / 활안. 수법. 수광. 수혜. 수오. 수각. 수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화상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음 9. 23) (목) (2박 3일) (구족계)
10월 18일(음 9. 25) (토) 10시 (보살계)

◆장 소 : 전남담양 용화사 아일다울원

◆문 의 : 061)381-2683, 055)334-1122 / 팩스 055)328-2762
010-7316-4789(섭외위원장 수월)

1부] 오전 - 불자위한 보살계 2부] 오후 - 나라위한 수록재(영가수계)

◆공 연 : 중국소림무술단 시범 / 한국태극권단 시범

주 최 : 해동울맥법흥대울사문회 / 주 관 : 한국불교승가단체협의회

계 단 장 법민 대 회 장 대광
봉행위원장 수풍 집행위원장 수왕

협 찬 : 동참종단 / 승가단체 / 각사암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